

# 초식남자



김 양 평 의  
일본 이야기

지금은 일본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되었지만, 한때 일본의 신문과 TV 등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며 사회적 문제로 관심이 집중되었던 단어가 있다. 바로 ‘초식남자(草食男子)’, 줄여서 ‘초식남’이다.

이 표현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이며, 2000년대 후반에 일본의 공영 방송인 NHK와 주요 신문사인 아사히신문 등에서 집중해서 다루면서 사회현상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확산하였다. 이 신조어는 매우 직관적으로 ‘초식동물과 같은 남성’을 의미한다. 초식동물의 이미지는 순하고 착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초식남은 단순히 착한 남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와 경쟁, 소비 등에 적극적이지 않은 남성을 가리키는 단어다.

이 단어가 등장한 배경에는 일본 사회

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1970년대에 이미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때 일본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한 산업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과 같이 남성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한 중화학공업과 제조업이었다. 이에 남성들은 장시간 외부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여성들은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가정 내 분업 구조가 고착되었다. 따라서 당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기대치는 분명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일본 경제에 버블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초반부터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일본 경제는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반복하여 침체가 꽤 오래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사회 구조가 변화였고 남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도 달라지는 과정의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초식남이다.

일본의 산업구조 변화도 초식남의 등장에 한몫했다. 정보 통신 발달과 공장 자동화로 인해 남성 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사회와 경제 구조가 달라졌는데 남성에게 기대되는 전통적인 역할은 변하지 않으니 이 모순 속에서 초식남이 등장한 것이다.

초식남이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진 것은 무엇보다 연애와 결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소비활동에도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애와 결혼을 하지 않는 남성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소비를 줄이면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초식남이란 단어가 과거만큼 사용되지 않는다.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노동 시장의 세대 교체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이 다시 활발해지며 위기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연애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분위기는 확산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일본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일본의 ‘초식남’은 최근 우리 사회에도 던져진 질문이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 거래소 감시, 누구의 몫인가



김 지 수 첩  
신 하 운  
(자본시장부)

시장감시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넥스트레이드(ATS)가 출범하면서 한국거래소는 더 이상 ‘유일한 시장’이 아니다. 시장은 이제는 경쟁사이면서 동시에 감시자가 되는 구조가 정당한가를 묻는 것이다.

시장감시본부는 지금까지 거래소 내부 조직으로 운영돼 왔다. 과거에는 한국거래소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기에 내부 감시가 관행처럼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다르다. 시장이 복수경쟁 체제로 들어섰고, 더 많은 거래소에 대한 수요도 언급되는 만큼 한국거래소 내부에서 감시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의 경우에도 한국거래

소에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내면서 감시까지 받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분리론이 힘을 얻는 또 다른 배경은 속도다. 현행상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를 포착하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구조는 속도와 실효성에서도 한계를 보이며 분리론이 거론돼 왔다. 의심거래 포착에서 제재까지 평균 수개월, 재판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이를 쏙낸 기관 구조 위에 올려놓고 감시의 실효성을 말하기는 어렵다. ‘감시-조사-제재’의 과정을 일원화하는 ‘한국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설립이 해법으로 제시됐던 이유다.

논의는 감시본부를 넘어 청산결제본부(CCP)로도 이어진다. 국제 기준은 분리를 요구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한국거래소 내부에 남아 있다. 기능적 독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했지만, 실행 수준에서는 늘 ‘보류’에 가까웠다.

다만 방향성이 곧 현실은 아니다. 분리

와 독립만이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율규제기구로서 한국거래소가 감시 업무를 유지해 온 데는 비용과 운영의 문제도 작동했다. 미국 역시 2007년 독립 자율규제기구인 금융산업규제청(FINRA)을 설립한 이후에도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에서 내부에 시장감시 관련 조직을 두고 있다. 외부 독립 기구와 내부 감시가 혼재된 질충형 모델이 실제 운영 방식인 셈이다. 게다가 감시 조직을 외부로 떼어낸다면 예산, 인력, 권한의 재편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신입사원 대부분이 시장감시본부에 충원되고 있다. 하지만 부서의 선호도는 전통적으로 낮게 유지돼 왔다.

결국 답은 어렵지만 질문은 단순하다. ‘누가 감시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감시하느냐’다. 감시의 독립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어떻게 조할지, 그 설계가 관건이다. 감시는 역할이 아니라 위치의 문제일 때가 많다.

/godh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2일 (음 8월 1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협력의 수레바퀴가 노후를 포근하게 끈다. 48년생 사랑 없이는 반려견을 키우지 말아야. 60년생 수동적인 자세는 이득이 없으니 적극적으로. 72년생 구직은 오랜 기다림 끝에 좋은 소식이 온다. 84년생 재물의 본질은 성실함.



37년생 뒤편 실천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다. 49년생 애정에서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니 마음이 즐겁다. 61년생 역동의 시간으로 기를 펴고 일할 수. 73년생 여제까지 막힘이 오는 풀린다. 85년생 집수리하는 일의 추진이 다소 늦어진다.



38년생 흉탕물은 잠시 두면 자절로 맑아진다. 50년생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슬퍼 말자. 62년생 나의 삶의 중심은 항상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74년생 책임과 판단에서. 86년생 부동산 주택매수 시 설계사분께 한번 문의를 해보면 도움이.



39년생 등산 가서 새로운 만남은 신중히. 51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계획을 정리. 63년생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해가 될 수. 75년생 이직해서 마음고생이 심하나 보답은 받는다. 87년생 마음을 바로잡으려 해도 내 힘이 미치지 못한다.



40년생 세상일에 참여하지 말고 자신만 골게 가져보자. 52년생 시기를 하더라도 미워하는 티를 내보이지 말자. 64년생 소인배일수록 복수의 칼을 가니 조심. 76년생 마음의 문을 열고 재산분배를. 88년생 사서 고생하니 오늘은 외출 자제.



41년생 세사에 공짜는 없으니 공짜 강연에는 안 가는 것이. 53년생 사소한 실수로 그동안 공들였던 일이 무산될 위기. 65년생 내게 관계없는 일에 구설 참견 마라. 77년생 하찮은 걱정은 접어라. 89년생 잘못해놓고 화를 내면 어찌하나.



42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멀리 있는 길도 무난. 54년생 초조한 마음이 병이 될 수 있으니 여제의 인연은 잊어야. 66년생 좋은 운을 실감하는 날이다. 78년생 서남쪽의 이사는 행운을. 90년생 첫 출근 마음에서 기쁜 일이 일어나는 하루.



43년생 운이 상승기류를 타고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모험에도 나가보자. 55년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행해야. 67년생 붉은 카펫 위를 걷는 오늘은 내가 주인공. 79년생 밤에 교통안전에 신중. 91년생 기일이 있으니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44년생 부부 다툼이 있고 뉘우치게 된다. 56년생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더 반짝인다는 것을. 68년생 일이 하기 싫으니 게으른 변명만 보인다. 80년생 가을이 지나고 추위가 닥쳐오니 겨울준비를 해야. 92년생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자.



45년생 앞만 보고 달리면 주변을 볼 수 없다. 57년생 껌질을 깨뜨려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69년생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니 남을 미워 마라. 81년생 하다 보니 무에서 유를 창조. 93년생 게으름은 경제적 어려움이 싹트는 원인.



46년생 자식이 인연을 만나니 할 일을 다 한 듯. 58년생 돈을 잘 쓰면 못쓰던 것이 판단에서 나온다. 70년생 뜻은 원래하다. 82년생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안개처럼 사라진다. 94년생 시시비비를 지나치게 가리면 오던 복도 달아나게 된다.



47년생 옆 사람의 말에 과반반을 보이지 말자. 59년생 영업에서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71년생 내 말이 다 옳을 수는 없다. 83년생 남녀를 이어주는 것은 붉은 실이니 붉은 색상을 입고 오후 미팅에 나가자. 95년생 투자는 집 식구들과 상의.



## 김상회의四季

천제(天祭) 지내는 개천절

선조들에게 제사는 축일이다. 원시시대부터 기원 의식은 다양한 종류의 제사를 만들어냈다. 오죽하면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이 왕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겠는가? 건국 시조인 단군왕검도 제사장으로서 왕권을 같이 행사한 것으로 사가들은 얘기한다. 단군이 언급되는 삼국사기나 제왕운기 등에서 단군은 고조선의 초대 군주로 보며, 하늘신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나라를 열었고, 그 아들인 단군이 후계자로서 고조선을 열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하늘신 환인(桓因)은 제석신의 또 다른 한자 이름으로 옥황상제로도 알려져 있다. 제석천왕의 아들이 하늘문을 열고 태백산 신단수(神壇樹) 아래에 내려와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의 대업을 시작한 때는 바야흐로 일년 12달 중 가장 상서로운 달이라는 시월이었다.

여름의 열기가 가시면서 대기는 높아지니 하늘문이 열리는 때라고 보았고 인간의 정성이 하늘에 장애 없이 맞닿을 수 있는 때라 시월 상달이란 별칭까지 붙었다. 삼천리 방방곡곡이 하늘을 우러러 경의를 표하며 나라는 나라대로, 마을은 마을대로 나라와 고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하늘에 감사제를 올리는 것이다. 가정은 식솔들의 건강과 무탈함, 재수대통을 바라며 시루떡을 찌고 정성껏 지은 곡주나 청정수를 올리며 고사를 지냈다. 현재 국가 공휴일인 개천절은 양력 10월 3일이지만 그 유래를 살펴보면 BC 2457년 음력 10월 3일을 뜻한다고 한다. BC 2457년은 갑자년으로서 상원 갑자(上元 甲子)로 낱짜를 따지는 역법적 추산이지만 주역적 관점에서 상원 갑자는 새롭게 기원이 시작한다는 의미다. 삼천삼이지의 조합인 육십 간지의 출발은 갑자이다. 나라를 시작할 때 시원이 갑자년이었고 따라서 상원갑자라 이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윤휘중 |
|-------------|---------------------------------|-------------------|-----|
| 인쇄인         | 중앙일보(주)                         |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 2002년5월28일 제5767호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 2017년3월09일 제1871호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   |   |   |   |   |   |   |   |
|---|---|---|---|---|---|---|---|
| 3 |   | 6 |   |   |   | 4 | 2 |
| 7 | 6 |   |   | 1 |   | 9 | 3 |
|   | 1 |   |   |   |   |   | 8 |
|   |   |   | 7 | 3 | 9 |   |   |
|   | 3 |   | 5 |   | 6 |   | 9 |
|   |   |   | 1 | 8 | 4 |   |   |
| 2 |   |   |   |   |   |   | 7 |
|   | 7 | 1 |   | 4 |   |   | 8 |
| 8 | 4 |   |   |   | 7 |   | 3 |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   |   |   |   |   |   |   |   |   |
|---|---|---|---|---|---|---|---|---|
| 8 | 1 | 2 | 3 | 6 | 9 | 9 | 7 | 8 |
| 9 | 8 | 2 | 9 | 7 | 8 | 1 | 2 | 6 |
| 7 | 2 | 9 | 1 | 9 | 8 | 8 | 6 | 2 |
| 6 | 2 | 8 | 7 | 8 | 1 | 2 | 9 | 9 |
| 2 | 6 | 8 | 9 | 2 | 9 | 7 | 8 | 1 |
| 1 | 9 | 7 | 6 | 8 | 2 | 8 | 2 | 9 |
| 8 | 9 | 9 | 8 | 2 | 2 | 6 | 1 | 7 |
| 9 | 8 | 6 | 8 | 1 | 7 | 2 | 9 | 2 |
| 2 | 7 | 1 | 2 | 9 | 6 | 9 | 8 | 8 |

|   |   |   |   |   |   |   |   |   |
|---|---|---|---|---|---|---|---|---|
| 8 | 6 | 7 | 8 | 2 | 9 | 9 | 1 | 2 |
| 7 | 2 | 9 | 2 | 1 | 8 | 9 | 8 | 6 |
| 1 | 2 | 8 | 8 | 9 | 6 | 7 | 9 | 2 |
| 6 | 7 | 9 | 1 | 8 | 8 | 2 | 6 | 9 |
| 2 | 9 | 2 | 7 | 9 | 1 | 8 | 8 | 8 |
| 9 | 8 | 1 | 9 | 6 | 2 | 8 | 2 | 7 |
| 8 | 8 | 6 | 2 | 7 | 2 | 9 | 1 | 1 |
| 9 | 9 | 2 | 7 | 9 | 1 | 6 | 2 | 8 |
| 2 | 1 | 6 | 9 | 8 | 2 | 8 | 7 | 9 |